

‘평택을’ 범여권 갈등 격화 민주, 조국 단일화 선긋기

김용남 "5차 구도도 당선 자신"
조승래 "당대 당 협상은 없다"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범여권 후보들이 완주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6일 "5차 구도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당선될 자신이 있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과거 '조국 지지'로 불리기도 했던 김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재정을 배출하고 많은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후보처럼 사람 질리게 만드는, 그런 수준 낮은 정치 안 하겠다"며 "국민의힘 재로"를 표방하고 나온 분이 왜 저만 계속 네거티브의 대상으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고 조 후보를 비판했다.

이와 "평택을(선거)에서 민주당 재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물론 2, 3등 후보들이 1등 후보를 때리는 건 선거 전략상 당연

해 보이지만 그렇다면 '내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고 얘기를 해야 했다"고 조 후보를 거듭 비판했다.

또한 조 대표가 '민주당 개혁'에 선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자랑한 데해서는 "과거에 일부 '위선적이고 무능할 때의 민주당스러움'이라며 '유능하고, 솔직하고, 각종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지금의 민주당스러움(에 걸맞은 후보는) 저 김용남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 2년 실행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내 분보다 솔직히 더 용이 많았다"면서 "조 대표는 유력 국정 관철을 받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 후보측은 '이태원 참사' 단일화 10월29일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던 '집회 지지'를 참사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세금 낭비로 비판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를 옹호했다'고 몰아세웠다.

조국 후보 캠프 박병언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연합 소속이던 김 후보가 YTN 라디오에서 '이태원 참사는 광화문 집회 시위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면서 "방송을 재생해 보면 바로 드러난 거짓말을 에 반박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격 검증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만큼 어떻게 하려는지 아주 궁금하다"라며 "민주당 후보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여권 후보들이 이진부규 양상을 보이면서 '범여권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기자회견장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을 주고 받는 단일화는 없다"며 "당대 당 협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 김현 의원, 지역구 시의장 선출 개입 논란 확산

순 "안산시의회 자리 내가 만들어"... '실전' 녹취록 공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역구내 박태순 경기 안산시의회 의장과 통화에서 '의장 자리는 내가 만들어 왔다' 등의 설전을 벌인 녹취 과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공개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김현 의원은 지난 2025년 7월 재직의원 과반 득표로 후반기 안산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박 의장을 상대로 "제가 지역위원장 할 때 의장이 되신 것"이라며 "저희가 선출해 준 것"이라며 "저희가 선출해 준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박 의장이 "내가 누가 선출해 주냐, 의회 의장은 의회 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저희가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의회 의원이 누구였는지 아냐, 그때 000, 000가 뽑아준 것"이라며 "그때

지역위원장이 누구였다. 저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난 그건 몰랐는데"라고 반증하자 김 의원은 "그런 바보지,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라고 받아쳤고 다시 박 의장은 "말씀 똑바로 하라, 바보라고"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왜 거기 국회의원이 개입을 하나"고 따지자 김 의원은 "개입이라냐, 나한테 물어달라고 해놓고"라고 되받아쳤다.

한편 설전의 발단은 박 의장이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아닌 경쟁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사자 간 경리가 된 사람"이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박태순 의장과 통화 중 결례를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안산시 의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산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안산시 지역위원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Self 셀프주유소. 휘발유 2014, 경유 1989, 고급휘발유 2427, 제신유카드 40~120

경기도, 중동사태 수출기업 지원 '미래성장펀드 8호' 2246억 조성

경기도가 관세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수출기업들의 경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말 '미래성장펀드 8호' 조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특정 국가·품목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체질개선 유도에 목적을 두고 조성했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100여억을 출자했으며 민간투자금 2146억원을 합쳐 총 2246억원이 조성됐다. 이는 도가 당초 목표했던 500억원의 배가 넘는 금액이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도내 수출기업 중 ▲수출주요품에 강점이 있는 기업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하거나 수출 제품 원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 ▲미래성장잠성산업으로 사업전환을 꾀하는 기업 등에 25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지난 2025년 대미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8호를 구성했으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미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금융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수출입 차질 등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18개 기업에 83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펀드는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체질개선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지원 성격으로 추진된다.

수원=채승수 기자 cs7749@siminilbo.co.kr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금리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인천=문한식 기자 mcs@siminilbo.co.kr

소비자물가 21개월만에 최고

석유류가 20% 넘게 오르는 등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21개월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렸다.

서울시가 마포동 79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지역재개발 정비구역에 합종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최고 23층·525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2025215.4㎡)는 지난 50년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지역재개발을 제외한 개발행위도 진행할 수 없었다. 현재는 환지에정지로 일부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을 마쳤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주민은 개

미아동 791번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23층 525가구 공급

람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사이 건축물 노후화와 차량 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으로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이번 기획은 ▲주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계획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단지 계획 ▲생활 플라스타 계획 ▲기호화철화 계획이라는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녹지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지형에 순응한 단지를 조성한다.

공원과 공공공간을 연계한 단지 내 녹지축을 형성하고, 인근 미아

서양사거리역과 연계한 진입부 계획과 단지 상징성을 부여

했다.

넷째, 일상과 연결되는 생활 중심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보행 흐름을 따라 일상과 마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행·복지·커뮤니티 중심의 생활 클러스터를 계획했다.

다섯째, 가능한 가로 위계를 반영한 가로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학교를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시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평균 45m) 및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장 계수(2.0)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강화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祝 · 시민일보 창간 32주년

같이 걷는
 강남구 함께
 만드는데 변화

강남구의의회